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강승미¹, 백진아^{2*}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Mather's Child Rearing Behavior on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Seung-Mi Kang¹, Jina Paik^{2*}

¹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부합하는 1,524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과 Sobel test를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자기통제력은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육현장에서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공격성, 자기통제력, 한국아동패널조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effect of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 on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between two variables. For the purpose, 1,524 children who fit this study among children aged 5 through 7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were selecte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and the Sobel tes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 was shown to decrease aggression of children, while mother's control of rearing behavior had no influence their aggression. Second, It was shown that the self-control of young childre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aggression. Third, self-control was shown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 and aggression of children. Accordingly, various programs to reduce the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were suggested and an alternative plan was proposed to be applied to child care sites.

Key Words :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 Mother's control of rearing behavior, Aggression, Self-control, Korean children panel study

1. 서론

전통적으로 언어·인지·행동 발달의 단계에 놓여 있는 유아기는 자기중심적이며, 충동적인 정서의 특징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유아는 의사소통 기술이 제한되어 있고,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August 19,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30,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강제적 행동을 자주 보인다[1]. 유아기는 정확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자주 좌절감과 문제 상황에서 갈등을 겪지만,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종종 공격적인 행동[2]으로 좌절감을 표출한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의 모습으로는 생후 2년 동안에는 화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짜증을 내거나 놀이에 활용되는 도구를 휘두르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2~3세부터는 신체적 공격으로 이어진다[3].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상대방을 밀거나 때리는 형태 즉, 외적으로 드러나 상대방에게 물리적 접촉과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외현적 공격성이라고 하며, 관계적 공격성은 의도적으로 또래 간 관계에 영향을 주어 관계를 조절하거나 방해하여 친밀감과 소속감을 손상시켜 해를 입히는 행위[4,5]를 의미한다.

유아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나타나는 폭력과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6,7]. 따라서 유아기에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에 조기 개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기는 공격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시기[7]라는 점에서 적절한 교육과 개입을 통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유아의 공격적 성향은 이후 유아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되거나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8-11]들이 유아시기에 발휘되는 공격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 문제를 감소시키는 시도를 했으며, 유아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찾는데 기여했다. 유아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지만 그중 주요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을 내재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변인이 자녀의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12-17]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7]에 의하면 부모가 강압적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약물 복용과 같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이어가는 경우에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유아의 신경심리학을 중심으로 부모의 학대적 태도와 공격성을 다룬 선행연구[18]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유아의 사회인식, IQ, 후각 식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부모의 학대적 양육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부모

의 애정표현이 부족하거나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경우 이로 인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19]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고 양육을 주로 전담하는 어머니는 아동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그 유형에 따라 크게 명령과 강제 혹은 간섭을 중심으로 하는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사랑과 친밀함을 중시하는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양육행동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인격 발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지적, 성격적 영역 그리고 공격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20-22]으로 확인됐다. 4-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12]에서도 어머니가 온정적 태도를 적게 보일수록 외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나아가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우울감을 겪거나 심화된 상태에서 양육할 경우 유아의 공격성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유아의 외부화 행동간의 관련성을 제기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23].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유아기 양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이며, 애정을 덜 표현하면서 정신건강이 긍정적인 상태가 아닐 때에 유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유아의 공격성 내재화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선행연구[20,23-26] 고찰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온정적일수록 자녀는 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12,27],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니고 자녀를 대하거나 자기성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의 공격성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2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지와 애정, 지속적인 관심을 수반하는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를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보다 순화된 행동과 표현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다[19].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공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공격성과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였다.

한편, 유아의 공격성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따라 간접

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통제력을 갖고 있는 유아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거나 공동의 규칙을 따르고 즉각적인 분노 표출을 조절하면서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의 형성이 유아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양육행동 이외 다른 변인으로 유아의 공격성을 설명한 연구들은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공격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8-30]. 유아의 공격성과 인지적/정서적인 자기조절 능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31]에서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며, 실제로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부족은 공격성과 폭력을 유발하는 핵심요소를 밝히고 있다. 유아의 공격성은 자기통제력을 경료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통제력을 더 발달시킬 시에는 공격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32]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만 4세-5세를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증진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 인지조절 및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33,34]에서도 자기통제력이 증진된 유아의 경우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감소되어 자기통제력이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유아의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 자신의 자기통제력 또한 공격성을 감소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공격성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자녀관계 간 변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 및 성향 문제를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으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역동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할 수준이다. 또한 유아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공격성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매개역할이 충분히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 세 변인 간의 영향을 살펴보려는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력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여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력은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력은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2.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력은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아동패널 7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표본 아동(신생아)과 아동의 주 양육자인 부모를 중심으로 지필식 설문조사, 지필식 면접조사, CAPI 면접조사 수행검사를 바탕으로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정서 등에 관한 내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개인 요인에 대한 지필조사를 활용하였다. 총 1,562명의 패널 자료 중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524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 '782'명(51.3%), 여아 '742'명(48.7%)으로 남아의 비중이 여아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유아 월령은 '75개월'이 418명(27.4%)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74개월' 329명(21.6%), '73개월' 204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낮잠여부는 '낮잠시간 없음'이 702명(62.2%)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다음으로 '낮잠을 자지 않음'이 368명(32.6%), '낮잠을 자는 경우'가 34명(3.0%), '불규칙적임'이 24명(2.1%) 순서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을 살펴보면 '36-37'세가 350명(2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세 이상'이 337명(22.1%), '34-35'세가 314명(20.6%), '38-39'세가 267명(17.5%), '33세'가 256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575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가 444명(29.2%), '전문대 졸업'은 419명(27.5%), '대학원 졸업'이 85명(5.6%)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형태에서는 '부모+자녀'가 1,388명(91.1%)으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기타는 135명(6.9%)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957명(62.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287명(18.8%),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275명(18.0%),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5명(0.3%)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형태는 '241-360만원 이하'가 431명(28.3%), '361명-480만원 이하' 390명(25.6%), '480-600만원 이하' 380명(24.9%), '601만원 초과' 202명(13.3%), '240만원 이하'는 121명(7.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524)

| variables | | frequency | % |
|-----------------------------|-----------------------------------|-----------|------|
| gender of child | boy | 782 | 51.3 |
| | girl | 742 | 48.7 |
| age of child | ≤73M | 204 | 13.4 |
| | 74M | 329 | 21.6 |
| | 75M | 418 | 27.4 |
| | 76M | 328 | 21.5 |
| | ≥77M | 245 | 16.1 |
| a nap | no nap time | 702 | 62.2 |
| | a midday nap (irregular included) | 58 | 5.1 |
| | A no-show nap | 368 | 32.6 |
| employment status of mother | employment | 671 | 44.6 |
| | unemployment | 834 | 55.4 |
| mother's age | 33 years old | 256 | 16.8 |
| | 34-35 years old | 314 | 20.6 |
| | 36-37 years old | 350 | 23.0 |
| | 38-39 years old | 267 | 17.5 |
| | more than 40 years old | 337 | 22.1 |
| educational background | under high school | 444 | 29.2 |
| | college graduation | 419 | 27.5 |
| | university graduation | 575 | 37.8 |
| | graduate school graduation | 85 | 5.6 |
| family make-up | parents & Kids | 1,388 | 91.1 |
| | the other | 135 | 6.9 |
| daily stress | not stress at all | 5 | .3 |
| | little stress | 275 | 18.0 |
| | a little stress | 957 | 62.8 |
| | stress very much | 287 | 18.8 |
| income | less than 2.4 million won | 121 | 7.9 |
| | 24.1 million-36 million won | 431 | 28.3 |
| | 36.1 million-48 million won | 390 | 25.6 |
| | 48.1 million-60 million won | 380 | 24.9 |
| | more than 61 million won | 202 | 13.3 |

2.2 측정도구

2.2.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Cho et al[35]의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적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

동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양육 방식이다.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각 문항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함',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함'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자녀를 온정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을 뜻하며,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64로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명령과 간섭 등의 방식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엄격한 양육행동을 강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35].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의 각 문항은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침',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함',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함'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문항 중 요인부하량 0.4 미만인 '아이가 짜증 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음' 등을 제외한 총 5문항이 분석에 적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설계되어 있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규칙, 규율, 예절 등의 통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31로 나타났다.

2.2.2 유아의 공격성

공격성 척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보편적 척도인 CES-D[36]를 한국어아동패널조사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했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지만 그 중, 연구자는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공격성 척도를 선택하였다[37]. 공격성 척도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중 하나이며, 각 문항은 '요구사항들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0.4 미만인 7문항을 제외한 총 12문항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3점 척도로 1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2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3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96이다.

2.2.3 유아의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Gresham & Elliott[38]의 척도를 국내 연구자인 Suh[39]가 참고한 것을 한국어동패널 연구진이 검토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중 자기통제력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자기통제력 척도의 각 문항은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지킨다', '부모의 지시에 귀를 기울인다'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3점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69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둘째, 기술통계 분석으로 주요변인들의 평균값을 확인하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경로를 살펴보았다. 여섯째, 간접효과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절측값은 회귀대체법을 적용하고 이상치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전체 유의수준 $p < .05$ 에서 분석되었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변수의 평균값은 3.630(sd=.542)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행동 평균값은 3.460(sd=.484)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아의 공격행동의 평균값은 1.308(sd=.302)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의 평균값은 2.516(sd=.334)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의 절대값은 3을 넘지 않으며, 첨도 또한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 variables | Min. | Max. | Mean | S.D. | Skewness | Kurtosis |
|-----------|------|------|-------|------|----------|----------|
| ① | 1.00 | 5.00 | 3.630 | .542 | -.273 | .868 |
| ② | 1.00 | 5.00 | 3.460 | .484 | -.288 | .998 |
| ③ | 1.00 | 2.91 | 1.308 | .302 | 1.072 | .883 |
| ④ | 1.29 | 3.00 | 2.516 | .355 | -.334 | -.784 |

①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 ② mother's control of rearing behavior, ③ aggression, ④ self-control

3.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r=.23, p < .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통제력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r=.34, p < .0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27, p < .01$). 한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18, p < .01$).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공격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38, p < .0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모두 0.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 Variable | Correlation Analysis | | | |
|----------|----------------------|-------|--------|---|
| | ① | ② | ③ | ④ |
| ① | 1 | | | |
| ② | .23** | 1 | | |
| ③ | .34** | .18** | 1 | |
| ④ | -.27** | -.04 | -.38** | 1 |

①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 ② mother's control of rearing behavior, ③ self-control, ④ aggression, ** $p < .01$

3.3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자기통제력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인 유아의 성별, 모의 취업여부, 일상적 스트레스, 월평균 가구소득 등과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자기통제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Model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일상적 스트레스, 월평균 가구소득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Model 2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투입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Model 3에서는 자기통제력을 투입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Model 1에서 유아의 성별은 더미처리 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여자 아이보다 남자아이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9, t=3.144, p<.01$).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beta=.207, t=8.256, p<.001$)는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월평균 가구소득($\beta=-.067, t=-2.536, p<.05$)은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종속변수인 유아의 공격성에 대해 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Model 2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추가 투입하자 유아의 성별($\beta=.080, t=3.298, p<.001$)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beta=-.056, t=-2.173, p<.05$)는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50, t=5.939, p<.01$). 그러나 Model 1에서 나타난 월평균 가구소득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beta=-.236, t=9.085, p<.01$), 통제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1, t=-.042, p>.05$). 즉, 어머니가 자녀

를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2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수는 종속변수인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11.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 자기통제력을 투입하여 공격성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아의 자기통제력($\beta=-.320, t=-12.789, p<.001$)이 높으면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력이 투입되면서 Model 2에서보다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39, t=-5.385, p<.001$). 하지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beta=-.033, t=1.380, p>.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 사이에는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Model 3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유아의 성별($\beta=.046, t=1.973, p<.05$)과 일상적 스트레스($\beta=.138, t=-5.748, p<.001$)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어머니의 취업여부($\beta=-.068, t=-2.794, p<.01$)가 공격성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Model 2보다 10.7% 증가하여 22.0%로 나타났고, F값은 53.623 ($p<.001$)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4. The Effects of Mother's Warmth/Control of Rearing Behavior and Self-Control on Infants' Aggression

| Model | Model 1 | | | | Model 2 | | | | Model 3 | | | |
|-------------------|-----------|------|---------|----------|-----------|------|---------|-----------|-----------|------|---------|-----------|
| | B | s.d | β | t | B | s.d. | β | t | B | s.d. | β | t |
| ① | .039 | .012 | .079 | 3.144** | .040 | .012 | .080 | 3.298*** | .023 | .012 | .046 | 1.973* |
| ② | -.025 | .013 | -.050 | -1.908 | -.028 | .010 | -.056 | -2.173* | -.034 | .012 | -.068 | -2.794** |
| ③ | .083 | .010 | .207 | 8.256*** | .060 | .005 | .150 | 5.939*** | .055 | .010 | .138 | 5.748*** |
| ④ | -.014 | .006 | -.067 | -2.536* | -.010 | .005 | -.045 | -1.743 | -.004 | .005 | -.021 | -.863 |
| ⑤ | | | | | -.108 | .012 | -.236 | -9.085*** | -.064 | .012 | -.139 | -5.385*** |
| ⑥ | | | | | -.001 | .011 | -.001 | -.042 | .016 | .011 | .033 | 1.380 |
| ⑦ | | | | | | | | | -.224 | .017 | -.320 | -12.789** |
| F | 24.423*** | | | | 31.847*** | | | | 53.623*** | | | |
| R ² | .061 | | | | .113 | | | | .220 | | | |
| adjR ² | .059 | | | | .110 | | | | .197 | | | |
| Durbin-watson | 2.027 | | | | | | | | | | | |

* $p<.05$, ** $p<.01$, *** $p<.001$, ①the gender of a child(1=boy, 0=girl), ② employment status(1=employed, 0=unemployed), ③ daily stress, ④ income, ⑤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 ⑥ mother's control of rearing behavior, ⑦ self-control

3.4.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을 분석하여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통계분석 방법이다[40].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1]의 분석단계를 활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 Path | B | β | t | R ² | adj.R ² | F | |
|--------------------------------------------------|-------------|---------|------------|----------------|--------------------|------------|------------|
|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Aggression | -.125 | -.272 | -11.024*** | .074 | .073 | 121.534*** | |
|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 | →Aggression | -.074 | -.162 | -6.506*** | .167 | .166 | 152.140*** |
| Self-control | →Aggression | -.226 | -.324 | -13.011*** | | | |
|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Self-control | .224 | .340 | 14.083*** | .115 | .115 | 198.327*** | |

*p<.05, **p<.01, ***p<.001

Table 5의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적 양육행동 ($\beta=-.272, p<.001$)은 종속변수인 공격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기통제력을 투입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있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1단계보다 낮게 나타났다($\beta=-.162, t=-6.506, p<.001$), 이는 자기통제력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24, t=-13.011, p<.001$). 2단계의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력은 16.6%로 나타났다.

3단계의 독립변수인 온정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0, t=14.083, p<.001$). 위의 결과를 종합해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로 분석한 결과 Fig. 1은 Table 6과 같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statistic=-9.64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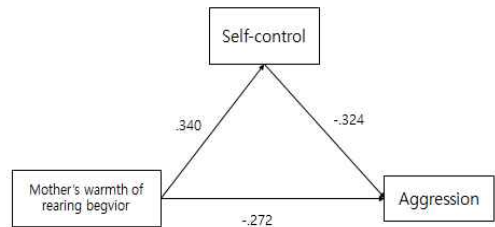


Fig. 1. The Result of Sobel Test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애착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며 친밀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유아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해져서 유순한 경향을 띠게 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격려나 애정 등의 온정적 태도를 덜 보일수록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한 Kwon[12]의 연구와 부모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행동이 자녀의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27]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부모의 무관심과 냉담함 혹은 거부적 훈육방식이 자녀의 문제적 행동과 공격성 표출에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 Path | Sobel test statistic | p |
|-------------------------------------------------------------|----------------------|------|
| Mother's warmth of rearing behavior→Self-control→Aggression | -9.640 | .000 |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18-19]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어머니만을 양육의 주된 대상으로 선정한 때문인지 혹은 다른 변인이 작용한 때문인지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통제력이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받고 칭찬이나 친밀한 접촉 등의 우호적인 태도를 접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물리적 폭력이나 충동 등의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데 좀 더 익숙해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자기 통제력이 높으면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유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간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주장하거나[28],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킬 경우 공격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밝힌 Orkibi & Tammie[3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유아의 정서적 문제행동이나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도[28-32] 자기통제력은 유아의 공격성을 이완시키거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녀의 폭력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공격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아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집중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적 함의 및 교육적인 측면과 연결시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사회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 유아의 공격성 정도를 면밀히 살피는 심리검사 서비스 지원 및 이에 따른 교육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아를 보육하는 주된 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긍정 훈육과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등을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교육하고 인성교육 강화와 눈높이에서 소

통하는 자세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공격성 원인은 단순히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자기통제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 변인 모두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에 진행된 유사연구[12-15]와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행동 조사 시 가족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나 FGI를 통해 위험군을 파악한 뒤 전문적 교육, 치료, 상담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공격성을 낮추고 부모자녀관계 증진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 자녀와 부모의 긍정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긍정적 가족역동을 생성하기 위해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여가생활 지원, 무료 가족상담 기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친화적이지 못한 근로환경은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25]. 무엇보다 유아기의 공격성은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이어져[6-7],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며 또래 관계 구축 과 집단 소속감 및 친밀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4,5]. 이런 점에서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형성 및 회복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사회의 토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유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동시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시간 직접적으로 유아들이 머무는 어린이집의 교육은 유아의 심리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관련 선행연구[40]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과 유아의 공격성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학 활동 프로그램을 매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게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 [42]에 따르면,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학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유아들의 공격성 감소를 비롯해 심리 정서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의 향상이 시급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의 심리정서인지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놀이 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완화시키고 폭력적인 행동을 감소시켜 유아들의 건강한 생활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하여 추후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의 공격성에 집중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유아에 관한 논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유아의 발달단계나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령별, 성별 차이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각 집단에 대한 정밀한 실천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공격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질문 문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나 환경,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관찰이나 내러티브 탐구 등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의 경험적 측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유아 행동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사회학이나 뇌과학 등 타학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나 다양한 연구방법론적 접근의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REFERENCES

[1] O. J. Jung, K. H. Lee & E. S. Lim. (2003). *A Child's Growth and Development* Seoul: Education Academy.

[2] M. Marion. (1994).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Responsible Anger Management in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97, 155-163.

[3] E. J. Han & K. S. Choi. (2003). The Relationship of False Belief and Inhibitory Control Skill in 3-and 4-Year-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4), 15-27.

[4] L. Berkowitz. (1993). *Ag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5] N. R. Crick & J. K. Grotppeter.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6] L. D. Eron. (1980). Prescription for Reduction of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35, 244-252.

[7] R. E. Tremblay, D. S. Nagin, J. R. Séguin, M. Zoccolillo, P. D. Zelazo, M. Boivin, D. Pérusse & C. Japel (2004). Physical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rajectories and Predictors.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114(1), 43-50.

[8] K. Nomaguchi, W. Johnson, D. Minter & L. Aldrich. (2017). Clarifying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Father Relationship Aggression and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 Family*, 79(1), 161-178.

[9] Z. SEÇER, H. GÜLAY OGELMAN, A. ÖNDER & S. BERENGJ. (2012). Analysing Mothers' Self-efficacy Perception towards Parenting in Relation to Peer Relationships of 5-6 year-old Preschool Children.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2(3), 2001-2008.

[10] Y. Özdemir, V. Alexander T & Ç. Figen. (2017). Parenting Processes, Self-esteem, and Aggression: A Mediation Model.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5), 509-532.

[11] M. Grace, T. Maloney & H. Patrick. (2019). The Influence of Parenting Practices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The Development of Childhood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7(1), 135-146.

[12] Y. H Kwon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Aggressions: The Moderating Role of Teacher-Child Conflictual Relationship. *Korean Association of Open Infant Education*, 17(1), 1-19.

[13] Y. L. Sin, & Y, S, Kim (2018).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and Empathy Based on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4(6), 51-61.

[14] C. V. Aken, M. Junger, M. Verhoeven, M. M. AG. Van Aken & M. Dekovic. (2007). The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Toddler's Attention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467, 1-15.

[15] E. N. Aron, A. Aron & J. Jagiellowicz. (2012).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 Review in the Light of The Evolution of Biological Respons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 262-282.

[16] K. A. Dunfield & V. A. Kuhlmeier. (2013). Classifying Prosocial Behavior: Children's Response to Instrumental Need, Emotional Distress, and Material Desire. *Child Development*, 84(5), 1766-1776.

- [17] D. A. Nleson, C. H. Hart, C. Yang, J. A. Olson & S. Jin. (2006). Aversive Parenting in China Associations with Chil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7*(3), 554-572.
- [18] J. F. Dileo, W. Brewer, E. Northam, M. Yucel & V. Anderson. (2017). Investigating The Neurodevelopmental Mediators of Aggression in Children with a history of Child Maltreatment: An Exploratory Field Study. *Child Neuropsychology, 23*(6), 655-677.
- [19] J. Y. Kim & Y. K. Jung. (2007).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Practice and Violent Behaviors in Adolescent. *Youth Studies, 14*(5), 169-197.
- [20] D. Olweus. (1991).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35*(7), 1171-1190.
- [21] S. J. Kim & I. J. Jung.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Warmth/control, TV Viewing Time and Behavioral Problems in Preschooler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0*(2), 1-23.
- [22] J. Mireille, V. Frank, D. Edward, C. Sylvana, N. Danie, Z. Mark & E. Richard. (2008). Controlling Parenting and Physical Aggression During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79*(2), 411-425.
- [23] T. Villodas, M. Bagner, M. Daniel, Thompson & Richard. (2018). A Step Beyond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The Role of Mother-Child Agg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7*(4), 634-641.
- [24] K. Rubin, S. Stewart & X. Chen.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PuDNMmug0AgC&oi=fnd&pg=PA383&dq=Parents+of+aggressive+and+withdrawn+children.&ots=rDB7kPaCZP&sig=NTWUYbzeL5Fg7PCSLQaUH-z5vIQ#v=onepage&q=Parents%20of%20aggressive%20and%20withdrawn%20children.&f=false>.
- [25] R. E. Tremblay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26] L. Hao, Chiu, Ming, Ming, Cui & Yunhuo, Zhou Wenye & Li, Shunyu. (2018). Parenting Style and Aggression: A Meta-Analysis of Mainland Chinese Children and Youth.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94*, 446-455
- [27] H. M. Shin & M. S. Yoo. (2015). Influence of Self Reflection on Children's Playfulness for Parents with Young Childre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ositive Parent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8*(2), 115-132.
- [28] J. H. Shin. (2009).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on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 [29] J. Y. Song.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ggression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Studies, 23*(7), 29-58.
- [30] I. H. Im. (2018).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Peer Conformity on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Delinquency-Focused on the Middle School Student in Jeju*.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31] J. H. Park & H. N. Song. (2011). The Effects of A Self-Regulation Ability Improvement Program on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Self-Regulation Abilities and on Reduction in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1), 157-182.
- [32] H. Orkibi & R. Tammie. (2019). A Dual-Pathway Model Linking Self-Control Skills to Aggression in Adolescents: Happiness and Time Perspective as Medi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3), 729-742.
- [33] M. Y. Huh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2), 170-189.
- [34] M. S. Kim. (2019).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f Mothers of Infants on Their Parenting Attitude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3), 1291-1306.
- [35] B. H. Cho, J. S. Lee, H. S. Lee & H. K. Kwon. (1999).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123-133.
- [36] R. C. Wasserman, C. M. DiBlasio, L. A. Bond, P. C. Young & R. B. Colletti. (1990). Infant Temperament and School Age Behavior: 6-year on Gitudinal study in a Pediatric Practice. *Pediatrics, 85*(5), 801-807.
- [37] Y. A. Kim, J. Lee, S. J. Moon, Y. J. Kim & K. J. Oh.

- (2009).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1)*, 117-136.
- [38] F. M. Gresham & S. N. Elliott. (1991).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 N.: American Guidance Service.
- [39] M. O. Suh. (2004). A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K-SSRS: Teacher and Parent Form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2)*, 223-242.
- [40] B. W. Lim. K. H. Ju & Y. j. Son. (2015). Statistics Social Welfare: Apply for PASW(SPSS). Changjisa.
- [41]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tator-Mek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7-87.
- [42] E. J. Kwon. (2013).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Aggressiveness of Preschoolers. *Korea Welfare Practical Association, 4(1)*, 49-90.

강 승 미(Seung-Mi K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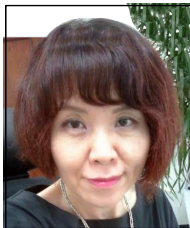


- 2000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사)
- 2017년 2월 :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8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가족,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
- E-Mail : mi6287@daum.net

백 진 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